

한말 의병 이조승의 서행(西行) 노정과 공간 인식 고찰 - 『서행일기(西行日記)』를 중심으로 -

한길로*

1. 서론
2. 서행의 배경과 귀국까지의 여정
3. 이역 활동의 실상과 공간 인식의 면모
4. 결론

<국문초록>

이조승의 『서행일기(西行日記)』는 1896년 6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대략 175일이란 기간 동안 수륙 약 5천 리(약 1,964km) 거리를 왕복한 당시 상황을 일기의 형식으로 담아낸 작품이다. 제천의병(호좌의진)의 종사관이었던 그는, 압록강 건너의 요동(만주) 일대로 건너간 스승 유인석을 찾아갔다. 그가 마주한 이역에는 별판의 혹독한 추위가 몰아치고 있었고, 끼니조차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극도의 빈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곳에 당도한 그는 고단한 여객(旅客)의 실정을 감내하며 불철주야 분투 중이던 동지들의 희생과 헌신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국내에서는 발견하지 못했던 동포들의 온정과 격려를 받으며 좌절에 빠지지 않고 전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그곳은 ‘나라의 회복과 중화의 보존’을 위한 사실상 최후의 근거지였지만 기대했던 면모를 실행하기 어려운 조건이었다. 결국 향후를 기약하며 귀국하는 그의 발걸음은 대단히 무거운 수밖에 없었다. 요컨대 작품은 23살의 청년 유생이자 의병의 현실 인식과 당대의 분위기, 또 그의 눈

* 길림대학 한국(조선)어학과 부교수(philosmind@jlu.edu.cn)

에 비친 이역의 정경과 그곳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던 동료 문인의 실상을 매우 잘 담고 있다. 또한, 현지 이주 조선인이 구축했던 관계망의 일면까지도 포괄적으로 담으면서도, 역사의 사각에서 자신을 희생하며 묵묵히 역외 항일투쟁에 일조했던 젊은 의병들의 숭고했던 삶을 성찰하게 한다.

* 주요어: 이조승, 『서행일기』, 의병, 호좌의진, 유인석

1. 서론

1894년 갑오농민운동을 빌미로 청일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결국 전쟁에서 승리하며 노골적인 국권침탈 의지를 드러냈다. 이런 배경에서 단행된 ‘갑오개혁’은, 내정개혁을 압박한 일제가 사실상 무력으로 한국정부를 굴종시킨 결과였다. 이러한 불의를 마주하게 된 유림 세력은 1895년을 기점으로 직접 ‘의병’이 되어 이에 항거했고, 이렇게 시작된 무장 투쟁은 향후 전개된 민족 독립운동의 ‘원천이자 동력’이 되었다.¹⁾

1896년, 연합 의병부대의 성격을 띤 ‘제천의병’에 합류한 당시 55세의 의암 유인석은 ‘호좌창의진(湖左倡義陣)’ 총대장 직위를 수락하며 본격적인 의병투쟁을 전개하게 된다. 그러나 관군과의 마지막 방어전의 결과로 의진의 기세가 크게 꺾이자 유인석 부대는 일명 ‘서행(西行)’²⁾을 결단했고, 곧 압록강을 건너의 땅을 재기의 근거지로 활용하고자 했다. 이에 그는 당해 8월 압

1) 김용달, 「한국독립운동에서 무장투쟁의 전개와 의의」, 『한국독립운동사연구』 69,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20, 373~374쪽.

2) 본고에서 기술한 ‘서행’이란, 제천의병이 중심이 된 유인석 의진(義陣)이 1896년 4월(음력) 관군과 일군을 피해 강원도와 평안도를 거쳐 요동(현 길림성 일대)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이른다. 참고로 제천의병은 당년 4월 29일 서행을 결단했고 7월 국경 지대인 초산에 도착한 뒤 압록강을 건너 회인현 사철자(沙尖子)에서 무장해제 후 심양으로 향했다. 그러나 기대했던 만청(晩淸)의 원조를 얻지 못한 일행은 9월 통화현(通化縣) 오도구(五道溝)에 들어가 그곳에 임시 정착했다. (김상기, 「의암 류인석의 사상과 제천의병」, 『의암 류인석의 생애와 대일 의병항쟁의 재조명』, 의암학회, 2015, 38쪽.)

록강 건너의 회인현(懷仁縣) 파저강(波猪江) 인근에서 의병의 무장해제를 단행한 뒤 대다수 의병을 강제귀국 시켰고, 본인은 중국 요동(만주) 지역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는 곧 ‘국의 독립운동 기지 구축 및 해외 투쟁’의 효시와 같았고, 항전에 대한 그의 의지는 사망 직전인 1915년까지 약 10년간 이어졌다.³⁾

단 그의 ‘서행’은 수많은 문인의 유·무형적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앞선 4월 제천에서 중군장 안승우(安承禹, 1865~1896)와 종사 홍사구(洪思九, 1848~1896)가 전사했다. 또 6월에는 본진에 앞서 길을 개척하는 도로장(道路將)을 맡았던 서상렬(徐相烈, 1856~1896) 역시 강원도 낭천(浪川)에서 관군과의 격전 끝에 숨지고 말았다.⁴⁾ 또한 비록 그와 동행하진 않았지만, 물밑에서 그를 조력하며 국내 정황과 여타 지역의 소식들을 수집하여 보고하기 위한 필사적인 활동들도 동시에 진행되었다. 형 이주승(李胄承, 1870~1946)과 함께 의병에 투신했던 관의재(寬毅齋) 이조승(李肇承, 1873~1900)이 바로 이에 해당된다.

제천 의병부대의 종사관이었던 이조승은 1896년 6월, 압록강 건너의 통화현(通化縣) 일대로 건너간 유인석을 찾아 나선다. 그곳에 도착한 그는 심양(瀋陽)에 머물고 있던 동지 원용정(元容正, 1860~1905)·유치경(兪致慶, 1848~?)을 만난 뒤 산둥(山東)으로 건너가 만청(晚淸)의 유력 인사들과 접촉해보라는 명을 받고 재차 이동한다. 하지만 당시의 정세로 인해 결국 이는 무산되었고 일행은 다시 통화현으로 돌아와 현지의 실정을 의암에게 보고했다. 결국 후일을 도모하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국내 복귀를 결정한 그는, 이듬해 1월 고향 제천에 돌아오게 된다. 175일이란 기간 동안 수륙 약 5천리(약 1,964km) 거리를 왕복한 그는 이때의 상황을 일기의 형식으로 담아낸 『서행일기(西行日記)』를 남겼다.⁵⁾

3) 이상근, 「유인석 의병진의 복상과 항일투쟁」, 『의암학연구』 5, 의암학회, 2008, 80쪽.

4) 구완희, 「한말의 의병장 경암 서상렬의 생애」, 『지역문화연구』 12, 세명대학교 지역문화연구소, 2013, 73쪽.

5) 이구영, 「(서행일기) 해설」, 『의병운동사적』, 현대실학사, 2002, 78쪽. (『서행일기』의 원문과 역문은 후손 이구영이 편역한 『호서운동사적』(1993)에 수록되었다가 2002년에 간행된 『의병운동사적』(이구영 편역)에 재수록되었다. 본고에서 인용한 『서행일기』는 『의병운동

『서행일기』는 두 가지 측면에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먼저 ‘국의 독립운동 기지’의 효시로 볼 수 있는 유인석 의병의 해외 활동 및 현지 생활의 일면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즉 압록강 너머의 요동 일대에 근거를 둔 유인석 의병의 활동을 담고 있기에, 국내에서의 이동과 의병 해산까지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의암선생서행대략(毅庵柳先生西行大略)』⁶⁾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동시에 위 자료는 이조승 개인의 항일 의지 및 현실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기록이라는 점도 주목된다. 의병투쟁 과정에서 얻은 상처와 요동행의 여파로 신병(身病)을 앓던 그가 서행 3년만인 1900년(당시 28세)에 병사했기에, 『서행일기』는 개인 이조승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문건으로의 가치가 인정된다.⁷⁾

이러한 문제의식 하, 아래에서는 먼저 그의 ‘서행’이 시작된 구체적인 배경과 목적을 살펴보는 한편 왕복 노정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 압록강을 건넌으로써 전개된 그의 해외체험의 실정을 확인하고 공간인식 분석을 통해 그의 내면을 조명하고자 한다. 그에게 요동(만주)이라는 공간은 단순히 피난을 위한 ‘복지(卜地)’ 그 이상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공간’은 이조승의 가치관과 현실인식이 가장 선명히 투영된 장소였다. 요컨대 본고는 『서행일기』를 통해 19세기 말 당시 요동 지역으로 건넌간 의병들의 현실과 생활상의 일부를 복원해보고, 외세에 저항하고 민족 공동체의 회복을 염원하며 자신을 바친 그들의 의기와 희생정신을 환기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사적』에 기초한 것임을 밝힌다.)

- 6) 해당 자료는 1896년 4월 13일 제천패전을 기점으로 서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뒤, 당해 7월 17일 평안북도 초산에서의 의병 해산 과정과 각종 사안을 기록한 것으로 원용정(元容正)과 그 밖의 문인들이 엮었다. (독립운동사편찬위, 『독립운동사자료집』 권1, 고려서림, 1971.) 즉 해당 자료는 평안북도 초산까지의 행적을 담고 있어 해외에서의 활동을 확인하기에는 제한적이다.
- 7) 이철승, 「관의재 이조승 가장」, 『의병운동사적』, 현대실학사, 2002, 341쪽. 참고로 그가 남긴 작품은 유인석 및 문인 선·후배와 주고받은 약간의 편지와 시, 그리고 청년 시절 장담에서 수학하던 때 지었던 「입학일기(入學日記)」(구완회·이충구·김규선, 『국역제천의병자료』 2, 세종대 지역문화연구소, 2008)가 있다.

2. 서행(西行)의 배경과 귀국까지의 여정

이조승의 본관은 연안, 자는 기중(紀中), 호는 관의재(寬毅齋)로 충북 제천에서 출생했다. 월사 이정구의 후손이라는 명문가의 후광과 상당한 사회·경제적 배경 속에 태어난 그는, 과거 시험과는 거리를 둔 채 경사(經史)에 전념하며 청년 시기를 보냈다.⁸⁾ 이후 그는 제천 장담에 머물던 화서학과(華西學派)의 성재(省齋) 유중교(柳重教, 1832~1893)를 찾아가 스승의 예를 다하고 문인이 되었다. 이 시기 그는 후일 함께 의병운동에 투신하다 절사(節死)했던 입암(立菴) 주용규(朱庸奎, 1845~1896)·경암(敬菴) 서상렬(徐相烈, 1854~1896) 등과 교류했다. 성재 사후 1년 뒤인 1894년 그는 유인석을 찾아가 문하생이 되었고, 이듬해 유인석이 의병대장이 되자 종사관으로 함께 했다.⁹⁾

1895년을 기점으로 그는 유인석의 지근거리에서 여러 일을 주선하며 스승의 폭 넓은 신임을 받았다. 1896년, 제천 의병은 충주성을 점령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며 단양 군수 권숙(權濶)·청풍 군수 서상기(徐相耆)·평창 군수 엄문환(嚴文煥) 등을 처단하게 되는데 이때 이조승은 유인석의 휘하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다. 즉 그의 형 이주승과의 협조 및 합작으로 충주성 내부 사정에 대한 소상한 정보를 얻어낸 것이다.¹⁰⁾ 또한 이 두 형제는 위기에 빠질뻔한 유인석을 구해내기도 했다. 권숙의 아들 권보상(權補相)이 선친의 복수를 다짐하며 유인석을 해치려 할 때 이를 사전에 탐지하고 저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¹¹⁾

더불어 이들 형제는 비록 관직에 오르지 않았지만, 명문가의 후예라는 배

8) 참고로 그의 숙부 이동재(李東宰)가 1889년 문과에 급제하여 서울에서 지냈다.

9) 이철승, 앞의 논문, 336~339쪽.

10) 구완희, 「이주승의 삶과 『휘암집』」, 『한말제천의병연구』, 선인, 2005, 236~238쪽.

11) 유인석에 의하면 권숙의 아들이 이조승의 외종이었는데, 이조승은 복수를 사전에 탐지하여 이를 저지하고선 관계를 끊었다. 그는 “이조승은 자질이 뛰어나고 총명하고 일찍이 문장과 학식을 갖추었으며 효도와 우애와 같은 행실 역시 갖추지 않은 것이 없었다. …… 내가 의병을 일으켰을 때에는 군중을 오가며 부지런하고 민첩하게 주선하였는데, 누구보다도 가장 뛰어나다. 내가 요동에 들어가자 수 천 리를 눈길을 헤치며 와서 나를 만났다. 권숙의 자식이 우리를 원수로 여겼는데, 그의 외종사촌이됨에도 끊어냈다”고 밝혔다. (『毅菴集』 卷32, 「散言」, “(乙未)李肇承資質精明, 文識夙就, 孝悌凡行, 殆無不備. …… 及吾學義, 出入兵間, 勤敏周旋, 在人爲最, 吾入遼, 數千里衝雪來見, 權濶之子讎吾, 爲其外從, 絕之.)

경에서 상당히 유의미한 혈연과 혼맥을 구축하고 있었다. 즉 이들은 사헌부 대사헌을 지낸 조부 이교익(李喬翼, 1830~?)의 관계망과 당시 비서승지로 있던 숙부 이동재(李東宰)를 통해 중앙 정계의 요인들과도 접촉하여 비중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¹²⁾

관군에 밀려 결국 서행을 결정한 유인석은 이를 활용하기 위해 별도로 이 조승에게 명하여 그를 서울로 파견하였다. 『서행일기』의 서문에 해당하는 「약서」에는 그가 직접 유인석을 배종하지 않고 별도의 노선으로 서행하게 된 전후 사정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마침내 대진(大陣)과 같이 풍기(豐基)까지 갔었는데 나는 충주 전투에서 부상당한 상처가 낫지 않고 출혈이 심하여 생명이 위독하게 되니, 의암 선생의 명령으로 두세 군사에게 번갈아 업혀 집으로 돌아와 병을 치료하였다. (... 중략 ...) 나는 이때 병이 좀 회복되어 정선에 가서 의암 선생을 뵈었다. 선생은 “바야흐로 서북 지방에 가서 군세고 용감한 군사를 다시 모집해서 떨치는 것이 목표이며, 일이 제대로 안 되면 중국으로 가서 곡진존초(曲秦存楚)를 해보려고 하네. 자네는 서울에 가서 나의 상소문이 임금께 제대로 전달되었는지의 여부 및 정책 정황을 자세히 탐지하고 또 군수품 조달을 신속히 할 것 등을 주선하고 오라”고 하셨다.¹³⁾

인용문에 드러난 것처럼 유인석은 관군의 진압 작전을 막아달라는 상소에 대한 정보와 동시에 의병 측에 호의적인 인사의 재정지원을 얻어내기 위해 그를 서울에 보냈다.¹⁴⁾ 이렇게 그는 6월 25일 고향을 출발하여 상경길에 올라 29일 서울에 당도했다. 그는 곧장 다른 의견과 접촉하며 의병 전체의 상황과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고, 또 이동재를 포함한 친지들과 접견하며 상소를 포함한 여러 정치적 현안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이때 그는 당시 군무협판(軍務協辦)을 맡고 있던 민영기(閔泳綺, 1859~1927)를 직접 만나 의병을 향한 당국의 시선과 향후 대책들을 청취하며 그들의 의도를 파악하게 된다.

12) 구완희, 앞의 논문, 236~238쪽.

13) 이조승·이구영(역), 「(서행일기) 약서(略序)」, 위의 책, 86쪽. (이하 서지 사항 생략)

14) 오영섭, 「을미 유인석 의병 결성과 활동」, 『의암학연구』 7, 의암학회, 2009, 148쪽.

여러 정황을 종합한 그는, 크게 낙담하게 된다. 의암의 상소가 내각에 올라갔지만 자신들의 죄과가 있을까를 염려하여 이를 공문화하려는 인사가 없음을 알게 되었고, 다른 의병들과의 협력 역시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논의에 가까웠다. 더욱이 의병을 회유하여 해산하려는 당국의 의지가 대단히 확고함을 확인하게 된다. 결국 그는 “우리가 거둬 무엇을 하려고 여기서 머물겠는가. 일찍 떠나는 것만 못하다.”¹⁵⁾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 사이 이동재를 만난 그는 “스승과 제자 사이에는 명분이 있는 바이니, 생사영욕에 어찌 시종을 달리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곳이든 의암 선생을 찾아가 뵈고 가르침을 받은 뒤 거취를 결정하겠습니다”¹⁶⁾라며 자신의 결심을 재차 드러냈다. 그렇게 이조승은 도강할 것을 결정하고, 8월 11일 ‘서행길’에 올라 유인석을 찾아 나서게 된다.

하지만 국내에서부터 그의 행로에는 적지 않은 제약이 있었다. 먼저 관군은 ‘해산하지 않은 의병에 대해 특별할 방침’임을 천명한 상황이었기에 그들의 이동은 대단히 신중하고 또 은밀해야 했다. 더욱이 얼마 전 ‘유인석의 서행을 뒤따르던 병사 10여 명이 평양에서 붙잡힌 뒤 평양 보통문(普通門) 밖에서 죽음’을 당한 사건이 있었다. 또 의주 출신의 이화영(李華永, ?~?)이 청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강을 건너다 붙잡힌 뒤 서울로 압송되어 옥에 갇혔던 사건도 있었다.¹⁷⁾ 더욱이 단발령 중지와 함께 의병을 지원해 온 명문가의 지원도 대폭 줄었고 일반 민중들의 시선 역시 전과 같지 않았다. 즉 ‘단발령’의 철회로 인해 의병을 싫어하고 괴롭게 여기는 기류가 생기면서 의병에 대한 민중들의 지원이 대단히 감소하기 시작한 것이다.¹⁸⁾

이런 배경에서 이조승 일행은 관군의 감시와 민중들의 경계를 피해 쉽 없이 서행을 이어갔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불리해졌다. 즉 “일행은 모두 지친 데다가 집을 멀리 떠나 상심이 되었으며, 또 가을밤은 점점 높아 가는데 몸에는 걸칠 옷이 없고 주머니에는 노자가 없었다. 물러서자니 앞길

15) 이조승, 『서행일기』, “7월 9일”, 101쪽.

16) 위의 책, “7월 10일”, 102쪽.

17) 위의 책, “8월 27일”, 133쪽.

18) 이러한 면모는 이경규의 「종의록」에서도 확인된다. (오영섭, 앞의 논문, 148쪽.)

이 그리 멀지 않고 나아가자니 걱정이 또한 적지 않은 형편”이었던 것이다.¹⁹⁾ 심지어 동행하던 홍선표(洪選杓, 1872~?)²⁰⁾가 다리를 다치면서 그들의 여정은 더욱 고단해져 “떠돌아다니는 괴로운 심정을 금하기 어려운 지경”이었다.²¹⁾

약 한 달 반의 기간을 거친 끝에 9월 16일, 일행은 압록강을 건너 청나라 관전현(寬甸縣_현 요녕성 단동시)에 당도했다. 그러나 당시 이조승 일행은 스승의 소재에 대해 알지 못했다. 그러다 통화현의 한 여관에서 우연히 의암이 머물고 있던 집주인을 만나게 되며, 의암이 머무는 장소와 여타 현황에 대해 듣게 된다. 이들의 안내와 조언을 듣고 다시 이동한 그들은 10월 4월 마침내 의암과 조우할 수 있었다. 그 대략의 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양화진(8월 11일) - 김포(8월 11일) - 강화(12일) - (황해도) 연안(13일)
- 평산(14일) - (평안도) 중화(中和)(23일) - 평양(28일) - 안주(安州)(30일)
- 박천(博川)(9월 1일) - 태천(泰川)(3일) - 벽동(碧潼)(10일) - (중국) 관전현
(寬甸縣)(16일) - 통화현(通化縣)(18일) - 백인비(白人碑)²²⁾(24일) - 육도구
(六道溝)(10월 4일)²³⁾

한편, 1896년 8월 무장해제를 결정하고 제자 21명과 함께 심양으로 향한 유인석은 원용정(元容正)·박진수(朴貞洙) 등을 통해 당대 가장 영향력 있는 관료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던 위안스카이(袁世凱)에게 군사지원을 요청하는 서신을 보낸다. 그러나 그들의 원병 요구 거절 의사를 확인한 그는 북경으로 가

19) 이조승, 『서행일기』, “8월 24일”, 131쪽.

20) 그는 유증교와 유인석의 문인으로 이조승과 함께 호좌의진의 종사로 참여했고 서상렬이 이끄는 부대의 중군으로 활동했다. 1898년 유인석이 재차 요동으로 건너갈 때도 함께 도강했다.

21) 이조승, 『서행일기』, “8월 30일”, 135쪽.

22) 현재 통화시 집안시에 위치해 있는데 백인비는 현지에서 광개토태왕비를 부를 때 사용된 용어로 판단된다. 백인은 과거 현지인들이 흰옷을 입은 한인(韓人)에 대한 호칭으로 추정.

23) 실제 유인석이 정착한 정확한 장소는 통화현 도생보(道生保) 오도구(五道溝)였다. 당시 통화현에는 ‘이도구’로부터 ‘십이도구’가 소속되어 있었다. (김양, 「통화현 오도구 근거지와 팔왕동 근거지」, 『의암학연구』 8, 의암학회, 2011, 66쪽.) 이조승에 따르면 유인석이 행차가 육도구에 도착한 것은 9월 보름 전후였고, 이후 함께 칠도구를 방문(11월 29일)하기도 했다.

려던 계획을 수정하고, 9월 통화현 오도구(五道溝) 일대로 돌아와 재기의 발판을 준비하게 된다. 이곳에는 이미 1만여 명에 달하는 이주 조선인이 거주하고 있었고 유격전에 유리한 지형이었으며, 동시에 황무지 개간을 통해 경제적 기반도 다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²⁴⁾ 이에 유인석은 심양·천진·북경·길림 등지에 파견된 인사들에게 이러한 그의 구상을 밝히는 동시에 그들에 의해 새롭게 포착된 정보를 수집해야 했다. 이에 그는 통화현에 집결한 인사들을 재차 활용하기로 결정하고, 이조승을 포함한 인물들에게 새로운 임무를 부여했다.

의암 선생은 (심양에 머물던) 원용정에게 편지로 “지금 만일 추호라도 안이한 생각을 갖는다면 하늘이 이를 싫어할 것이다. 또 사람이 적다고 말하지 말라.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돕는다면 마침내 운수를 돌이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예의의 나라를 다시 일으킨다는 것은 결코 일조일석에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정성을 기울이고 힘을 다하여 천하의 영웅호걸과 중국의 사대부들과 손을 잡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셨다. 그리하여 선생은 문생들에게 그 소질과 역량에 따라 각각 일을 명하여, 나는 심양에 가서 성암(惺庵) 박주순(朴胄淳)²⁵⁾과 함께 먼저 산동으로 가서 (중국인) 이병형(李秉衡)과 유영복(劉永福)을 만나도록 했다. 이 두 사람은 당대의 영웅호걸로서 이병형은 우리나라를 조국처럼 사랑한다고 했다.²⁶⁾

10월 9일 근거지 통화를 출발, 무순(撫順)을 거쳐 21일 심양에 당도한 그는 이튿날 원용정을 만났고 25일 유치경과도 접견한다. 하지만 그들을 본 순간, 이조승은 이들이 밀려가는 방세에 지속되는 굶주림, 턱없이 부족한 노자와 흑독한 날씨 등의 이유로 심각한 곤경에 빠져있음을 즉각 알게 되었다. 무엇보다 현지 정세의 변화로 인해 외부인의 산동성 관내 진입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결국 이조승 일행은 산동으로 가려던 계획을 단념하고 다시

24) 최봉룡, 『의암 류인석의 해외 서간도지역 항일운동근거지 구축』, 『의암 유인석의 생애와 대일 의병항쟁의 재조명』, 의암학회, 2015, 52쪽.

25) 그는 유인석의 거의 당시 호좌의병의 참모로 활동했다.

26) 이조승, 『서행일기』, “10월 11일”, 143~144쪽. 참고로 이병형(1830~1900)은 1896년 당시 산동순무(山東巡撫)이었고, 유영복(1837~1917)은 청일전쟁으로 일본에 대만이 할양되자 민중들을 이끌며 대항했던 군인이었다.

의암이 있는 통화로 향하게 된다. 14일 동안 심양에 머문 그들은 약 40일 뒤인 11월 24일 다시 육도구에 도착했다. 도착할 즈음 동지들은 삼삼오오 흩어져있었고 일부는 귀국하는 상황이었기에, 그 역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결정했다. 결국 그는 12월 2일, '내년 봄이나 가을에 돌아오기로 약속'하며 귀향에 나선다.

귀국 도중 황해도 평산에 모인 유증교의 문인들과 함께 『성재집』 간행 문제에 대한 논의를 마친 그는 이듬해 1월 23일 고향 제천에 도착했다. '죽은 자가 살아 돌아온 것 같이 기뻐'하는 가족들과 175일 만에 상봉하게 되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바로 '인근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의 횡포가 심하여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²⁷⁾

3. 이역 활동의 실상과 공간 인식의 면모

9월 16일 압록강을 건너서부터 시작된 그의 이역 활동은 12월 8일 초산(楚山)의 국내 주막으로 돌아올 때까지, 약 84일에 걸쳐 전개되었다. 그의 발길은 압록강 건너의 관전현에서 처음 청인의 상점을 발견한 것을 시작으로, 광개토대왕비가 있는 (통화) 집안시를 거쳐 스승이 있는 육도구, 그리고 심양까지 닿았다. 스승 유인석과의 의리 그리고 끝나지 않은 조국 해방 전쟁에 일조하기 위해 도강을 감행한 뒤, 이역을 누비던 그의 경험과 그 경험을 통한 서정은 『서행일기』 속에 여실히 담겨 있었다. 실제 목도하며 직접 누빈 이역에서 그는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롭고 또 복잡한 감정을 갖게 되었고, 그 공간은 이내 새로운 의미가 새겨진 장소로 변모했다. 이를 대별하면 다음과 같다.

1) 신순(身殉)을 자처한 동지와의 상봉과 이산의 현장

현지에 도착한 이조승은 그곳에서 다양한 인사들과 재회 및 접촉하며 그

27) 앞의 책, "(1897) 1월 23일", 189쪽.

동안 알지 못했던 여러 의병 및 동지들의 헌신과 고초를 직접 목도하게 된다. 그것은 자신 역시 경험하고 있는 것이었기에 상당 부분 공감할 수 있었지만 일면은 그의 예상을 초과했기에, 그들의 헌신은 그가 이역을 찾아온 대의와 명분을 상기시키고 또 강화하게 만드는 역할을 했다. 예컨대 10월 13일 통화에서 20리 거리의 황구(黃溝)라는 곳을 지나다 노상에서 만난 한 형제의 사연이 바로 그러하다.

“황구로부터 20리를 가서 하마하자(蝦蟆河子)를 지났다. 다시 한 고개를 넘으니 고개 밑에서 매운(梅潤) 형제분이 어쩔사리 걸어오는데 안색이 초췌하고 소백(小白) 윤양섭(尹陽燮)은 아직도 병색이 가시지 않았다. 겪은 고초를 대강 이야기하는데 모두 사람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것들이었다. 눈물을 머금은 채 손을 잡고 내년 봄·가을 사이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고 눈물을 흘리며 서로 작별하였다.²⁸⁾

하마하(蝦蟆河)는 흑룡강·송화강·목단강 지류이며, 심양으로 가는 길목에 해당되는데 현재 길림시 반석시(磐石市)에 소재한다. ‘매운’ 형제는 단양 출신으로 제천 의병의 참모를 지낸 매운 윤정섭(尹鼎燮, 1845~1913)·소백 윤양섭(尹陽燮, 1845~1913)이다. 이들은 창 의 이후, 의병 소집에 진력하다 이후 요동으로 건너왔다.²⁹⁾ 전장의 터전으로 전락해버린 고국을 등지고 찾아온 이역 만리의 노상에서 만난 동지들의 모습은 상술한 것처럼, 다름 아닌 흡사 목불인견(目不忍見)으로 묘사될 만큼 초췌한 형상이었다. 서로 다른 임무를 가졌던 이들이었기에 긴 시간 안부를 나눌 틈 없이, ‘기약하기 어려운 내일을 기약’하며 황망하기만 한 요동의 들판을 향해 다시금 발걸음을 옮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제는 그들의 궁핍한 처지가 일시에 개선될 수는 없는 환경이었다는 점이다. 우연을 기다리고 요행을 기원하며 하루하루 나아가갈 뿐이었다. 이조승 일행은 무순(撫順) 부근에 위치한 ‘흥경(興京) 지부(知府)를 접견하여 사정을

28) 이조승, 『서행일기』, “10월 13일”, 146쪽.

29) 옥산(玉山) 이정규(李正奎) 외, 『종의록(從義錄)』, 『독립운동사자료집1 : 의병항쟁사자료집』, 독립운동사 편찬위원회, 1970, 32쪽.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무응답으로 거절 당한 바 있다.(10월 15일) 또 제 때에 ‘은을 팔지 못해 저녁밥을 먹지 못한 채 빈속으로 밤을 청’하기도 했다.(10월 16일) 나아가 밥값이 없는 사정으로 인해 비적의 위협을 무릅쓴 채, ‘차고 있던 칼을 풀어 주며’(11월 12일) 숙소와 식사비용을 해결해야만 했다.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의 곁에는 그와 같은 길을 걷는 동지들이 있었다. 직접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이조승에게 커다란 위안과 용기를 북돋우며 좌절에 머물지 않게 만들었다. 다음은 11월 17일 스승의 머무는 통화 육도구 인근의 백변점(白弁店)에서의 일기이다.

“피곤하여 일어날 수가 없으나 그렇다고 또 목을 수도 없어 할 수 없이 출발하였다. 나와 유진천(兪鎭天)³⁰⁾과 함께 만만천(灣灣川)의 소미진(邵薇辰)을 찾아가려고 했으나, 날씨가 매우 차고 길도 돌아야 할 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도 곧 돌아가기를 권하였다. (…중략…) 곧 백점(白店)에 도착하니 지기 윤상필(尹尙弼)³¹⁾이 마중 나와 반갑게 손을 잡았다. 지난번에 듣기로는 송사를 만나 구금당했다고 하였는데, 아직 미결 중이며 큰 변을 당할 염려는 없다고 하였다. 헤어져 있던 동안의 회포를 서로 풀고 술을 사 오기도 하고, 친구들이 유숙할 곳을 마련하는 등 죄에 얽혀 있는 송사 중임에도 이처럼 남을 위하여 애를 쓰고 있었다. 가히 참으로 쟁쟁(鏗鏘)한 사람이 아니겠는가.³²⁾

1년의 절반가량이 겨울인 북만주 초겨울의 모질고 냉혹한 날씨 속에 계속 되는 도보 이동,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제대로 먹을 수도 또 잘 수도 없는 실정에 저자는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피로를 느끼고 있었다.³³⁾ 인용문에 나타난 것처럼 넉넉지 않은 형편의 주인에게 부담을 줄까 염려한 그들은, 무거운 몸을 일으켜 길을 나섰지만 스승이 머무는 곳으로 돌아가는 길은 여전히 막막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 만난 ‘지기’의 존재는 그의 몸과 마음을

30) 미상. 7월 16일 포천에서 함께 만나 서행에 올랐다.

31) 미상.

32) 이조승, 『서행일기』, “11월 17일”, 162쪽.

33) 그들은 은을 빌려 그것으로 경제적 유통을 시도했으나 은공(銀工)이 가짜일 수 있다는 이유로 모두 사지 않았다고 한다. (위의 책, “10월 17일”, 147쪽.)

따뜻하게 데워주며, 잠시나마 마음의 평안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동시에 자신의 처지를 돌보지 않는 그의 헌신과 진정을 통해 다시금 마음을 바로잡을 수 있었음이 감지된다.

상술한 것처럼 스승의 명에 따라 심양에 머물던 동지들을 만났지만, 그들 역시 악전고투의 연속이었다. 이에 그는 이루고자 했던 소정의 목표를 뒤로 하고 다시금 의암이 자리한 통화로 돌아갈 수 밖에 없었다. 현지에 머무는 동지들이 삶을 보며 그의 마음엔 일면 커다란 통한과 상심이 일기도 했지만, 지기(志氣)를 잃지 않은 그들을 통해 자신의 임무를 재차 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1월 28일 다시 육도구에 도착한 그는 돌아갈 계획을 세우고 12월 2일 마침내 귀국길에 오른다. 이날 그는 “의암 선생께 재배하여 하직을 고하였다. 차마 발길을 돌릴 수 없었다. 동료들이 모두 슬픔에 북받쳐 작별을 하니 참으로 천하에 마음 아픈 일이었다”라며 서글픈 속내를 기록했다.³⁴⁾ 이렇듯 통화에서 심양까지의 여정에서 그는 스승을 포함 많은 사우·동지들이 보여준 사투와 같은 헌신을 직접 확인하게 된다. 천하의 땅에선 힘겨운 일상을 감내 하던 동지들과 회합하며 서로를 위로하는 순간이 반복되었고, 그곳은 쉽게 확정할 수 없는 후일의 만남을 기약하며 힘겹게 이산하는 공간이 되었다.

2) 여객(旅客)의 애환과 정겨운 동포애가 교차하는 공간

상술한 것처럼 기대했던 청국의 지원이 일본과의 관계를 명분으로 거부당 하자 유인석 의병은 통화로 발길을 옮겨 ‘망국단(望國壇)’을 만들어 참배하며 ‘재기’의 시기를 기다렸다.³⁵⁾ 이때 유인석 의병의 재기를 위해 함께 요동 땅에 몸을 위탁한 그의 문인들은 긴 여정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움직이며 청나라 경내의 정보와 소식들을 수집해야 했고 각지로 흩어져 현지의 실정을 파악해야 했다. 단, ‘위로는 나라의 치욕을 씻고 아래로는 백성들의 인식을 바르게 하여 강상(綱常)을 세우고 천하에 중화 명맥’을 보존하기 위해

34) 위의 책, “12월 02일”, 167쪽.

35) 김상기, 앞의 논문, 40쪽.

중화의 땅으로 이동했지만, 실질적인 자구책이나 구체적인 수단이 아직 구비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하기에 이조승과 같은 문인들의 행보에는 수많은 실패가 함께했고, 시행과 착오가 교차되고 반복될 수 밖에 없었다. 사실상 그들은 고난을 감수하고 희생을 자처하는 ‘초과의무’를 내면화하고 또 직접 실천하고 있었다.³⁶⁾ 무엇보다 이들은 이곳의 지리와 실정에 익숙하지 않았고, 언어적인 문제 역시 상존했으며 경제적인 여력에 대한 안받침 및 뒷받침 역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즉 상당수 문인은 현지 당국의 협조와 유인석 측의 소식을 기다리며, 이역 땅에 고립된 상태로 ‘자기도생’의 현장에 던져진 듯한 생활을 이어가야 했다.

“굶주림과 추위를 참을 수 없어 통사 만포(萬浦) 김연교(金演敎)가 말도 없이 가버렸지만 크게 책망할 수도 없었다. 호구지책도 점점 더 어려워지고, 방세도 계속 쌓여가니 마음대로 가고 올 수도 없게 되었다. 서로 마주 앉아 궁리해보아도 이렇다 할 방도가 없으니 참으로 딱하고 괴로운 세상이 아닐 수 없다.”³⁷⁾

“나그네 생활(旅食)이 갈수록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청사(淸史) 이형구(李馨久)³⁸⁾는 시험 삼아 (주인에게) 그림을 그려주고 밥을 부탁해 보고자 했다. 종전에는 별 도움도 받지 못하였는데 주인이 요구하는 대로 그림을 그려주니, 그 대가로 옥당미(玉糖米)로 죽을 쑤어 저녁을 해결했다. 유치경·원용정 두 분은 한 달 이상이나 이렇게 식사를 하였다 하니 그 고생을 이루 다 적을 수 없을 것이다.”³⁹⁾

인용한 두 문장은 연일 지속되는 폭설에 발이 묶여 종일 여관에 머물고 있

36) 오일환, 「초과의무로서의 항일의병항쟁의 의미」, 『민족사상』 11(3), 한국민족사상학회, 2017, 11쪽.

37) 이조승, 『서행일기』, “10월 28일”, 154쪽.

38) 그의 본관은 여주(驪州), 자는 경문(敬文), 호는 청사(淸史)로 회재(晦齋) 이인적(李彦迪)의 후손이다. 1896년 호좌의진의 파수장으로 관군을 막았고 이강년 등과 함께 서행을 주장했다. 이후 유인석과 함께 요동으로 건너왔다.

39) 위의 책, “10월 29일”, 154쪽.

던 상황에서 기술된 것으로, 이조승의 수심과 조바심이 가감없이 반영되어 있다. 은의 유통이 원활하지 않게 되자 말길을 열어주던 통사마저 떠나버린 현실 속에서, 그들의 고투는 쉽사리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지경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듯 당시 이곳으로 건너가 활동하고 있던 조선의 의병들은 비비한 것과 거리가 먼, 사실상 이역만리에 던져진 ‘유민’의 신세와 하등의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글방[書房]을 전전하며 사정을 전해보지만, 이역에서 온 초췌한 모습의 그들을 향한 차가운 태도 역시 점차 익숙해져 가는 풍경으로 변해 있었다. 아래는 11월 10일 흥경(興京)에 조성된 누르하치의 무덤인 영릉(永陵) 부근 동창도(東昌道) 글방 주인의 냉담하고도 굳은 거절을 접한 뒤의 소회를 담은 희작시이다

마음에는 십서(十書)를 품고 몸엔 옷 한 벌 뿐이라 懷裏十書身一裘,
진나라 조정의 계자(季子)처럼 또한 구구해질 수밖에. 秦庭季子又區區.
내 도성 땅(負郭田)에 두어 경의 땅 없는 바 아니기에 負郭非余無二頃,
이 긴 밤 나를 몰라주는 그대를 탄식해 본다네. 慨他長夜不知愚.⁴⁰⁾

시에 등장하는 ‘십서·계자·부곽전(負郭田)’은 모두 전국 시대 유세가로 합종설을 주장했던 진나라 소진(蘇秦)과 연관된다. 이조승은 열 번이나 진왕(秦王)에게 글을 올려 벼슬을 구했지만 결국 ‘구폐금진(裘弊金盡)’의 신세가 되어 쓸쓸히 고향으로 돌아온 소진의 고사를 통해 자신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부곽전은 도성(都城) 근교의 토지를 의미하는데, 육국(六國) 합종을 이끌어내며 재상의 지위에 올랐던 그가 훗날 ‘내게 낙양 땅 두 이랑만 있었다면 오늘의 부귀는 없었을 것이다’라고 말한 것에서 유래했다.⁴¹⁾ 결국 그는 시를 통해 자신의 처지가 소진의 상황처럼 극단적이지 아님을 우회적으로 드러내며, 일행에게 심히 냉담한 태도를 보이는 주인의 마음을 예들려 꼬집고 있다.

이러한 시련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사히 통화로 돌아왔고, 이어 귀국까지

40) 위의 책, “11월 10일”, 159쪽.

41) 『史記 卷69 蘇秦列傳』, “且使我有洛陽負郭田二頃, 吾豈能佩六國相印乎!” 참고로 계자는 소진의 자이다.

가능했다. 이는 다름 아닌 무명의 인사들이 보여준 선의와 후의(厚意)의 영향이 상당했다. 예컨대, 10월 20일 무순(撫順) 장전자(長甸子)에 도착한 일행은 허기를 달래고자 길가의 한 민가에 들어가 요기를 청하였다. 주인 양계부(楊繼富)란 자는 비록 글을 모르지만, 그들의 손을 이끌고 이웃의 밥집으로 데려가 후하게 대접하며 허기를 해결해 주기도 했다. 또한 11월 8일 잠자리를 구하지 못한 그들이 부득이 주막에 들어갔지만 부족한 경비의 문제로 식사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다. 비상식량에 해당하는 '건량(乾糧)'으로 겨우 주린 배를 채우던 그들은 때마침 의를 좋아하는 사람(好義人)의 우조로 모처럼 푸짐하게 밥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

한편, 11월 14일 눈길을 헤치며 통화로 향하던 그들은 몸이 얼어 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만다. 이때 찾아간 한 글방의 주인은 그들을 위해 불을 구하여 몸을 녹일 수 있게 조치해 주었고 또 며칠 묵고 가기를 권하며 그들을 살갑게 위로해 주었다. 이에 이조승은 “물불로 서로 돕는 일을 누가 쉽다고는 하였던가, 오직 그대가 내어준 화로 참으로 다정도 하여라. 쓸쓸한 이역 땅의 눈길 속 나그네는, 도리어 한동안 원정의 괴로움 잊게 되었다오.(水火相求孰不輕, 惟君一火最多情. 蕭蕭異域雪中客, 忘却多時勞遠征)”라는 시를 전하며 그가 보여준 호의에 깊은 사의를 표했다.⁴²⁾

이렇듯 낯선 공간에서의 계속된 그들의 여정은 사실상 고난의 연속이었다. 통화로 돌아가는 길은 노자가 떨어져 ‘망문투숙(望門投宿)’해야 하는 처지였기에 동료들과 길을 나누어 소수로 이동해야 했다.(11월 2일) 더욱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들려오는 고국과 고향의 소식은 그들의 수심과 민을 배가시키고 있었다. (11월 12일)

하지만 그의 일기 속에 나타난 적지 않은 무명의 민초들은 맺가없는 성원과 진심 어린 격려를 보내주며 고국에서 온 청년 의병을 살갑게 대해주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혹독한 눈보라가 몰아치는 냉랭한 요동의 별판을 뚫고, 11월 24일 스승이 머무는 육도구에 다시 모여 ‘손을 잡고 그동안 겪었던 이야기를 나누며 슬픔과 기쁨이 함께 나눌 수 있었던’ 데에는 이들의 지지와

42) 이조승, 『서행일기』, “11월 14일”, 160쪽.

보살핌이 상당한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결국 그에게 그곳은 이산자의 서글픈 애환과 동포들의 아늑한 온정이 함께 만나고 공존하는 장소로 각인되고 있었다.

3) 불안과 우려가 교차하는 ‘복수보화(復讐保華)’의 근거지

1897년 8월 고종의 소명(召命)을 받고 중국 회인현(懷仁縣)에서 국내로 들어와 황해도 초산에서 올린 상소에서 유인석은 “나라의 원수를 갚고 중화를 보존하기 위한 대의(大義)”를 위해 요동으로 건너갔다고 밝혔다.⁴³⁾ 이조승 또한 대진(大陣)과 자신이 그쪽으로 향하는 이유를 웃어른께 밝히며 “듣건데 요동과 길림 지역에는 우리나라 사람이 많이 살고 있다니, 그리로 나아가 스스로 부락을 만들어 우리의 풍속을 지키며 도학을 강론한다면, 크게는 예악을 다시 일으킬 수 있고 작게는 화맥을 보존할 것입니다. 이 계획은 이미 세운지 오래입니다. 지금 여러 사람이 가는 것도 이 일을 위해 더욱 힘쓰려는 것 뿐이며 다른 계획이 없습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⁴⁴⁾

국경을 건너 그들이 머물 공간은 한족인 ‘화인(華人)’과 만주족인 ‘청인(淸人)’이 함께 혼거하는 공간이었다. 사실 그에 눈에 비친 청인들은 다소 무지하게 여겨졌다. 1880년 출도된 것으로 알려진 광개토태왕비 비문의 일부는 청나라 사람들이 착거(鑿去)해 버린 상태였다.(9월 24일) 또한 그들이 제시한 뱃사 때문에 상당 시간을 지체해야만 했기에 그에게 이들은 ‘의(義)’가 아닌 ‘이(利)’에 밝은 인물들로 여겨졌다.(9월 29일) 반면 화인의 예는 다소 상이했다. 통화현에 도착한 그는 통화현령의 주재로 진행된 초하루 알성례(謁聖禮)를 목격하게 된다. 온 마을을 들쭉이게 만든 이 유교 의례에는 ‘늘어선 기치와 마병 및 보병들의 행진이 이어졌고, 악기 연주를 동반한 행렬이 늘어섰으며, 교자(轎子)에는 은나라 왕자 비간(比干)의 소상(塑像)이 앉아 있었다.⁴⁵⁾ 즉 처음으로 이곳 현지에 당도한 그는 화인과 청인이라는 존재를 통해 실망과 기대를 동시에 감지하며 진입한 것이다.

43) 柳麟錫, 『毅菴集』卷4, 「因召命入疆至楚山陳情待罪疏」, “誠以爲國復讐保華之大義.”

44) 이조승, 『서행일기』, “8월 17일”, 125쪽.

45) 앞의 책, “10월 1일”, 142쪽.

이윽고 근거지에 도착한 그는 현지에 머물던 동포들의 삶의 태도를 보며 작은 희망의 단서를 발견하다. 의암이 머물던 육도구에서 그는 함경도 단천 출신의 이면후(李冕厚)⁴⁶⁾라는 인물을 만난다. 그는 이면후의 셋째 아들이 “예를 좋아하여 삼가례(三加禮)⁴⁷⁾를 행하였으며 엄정하고 예절이 발라 비록 청국 사람이라도 가변이 보지 못한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즉 조선에서 건너온 동포들이 과거의 전통 옛법을 여전히 고수하며 지켜나가고 있음을 전해 들었고, 또 이러한 면모는 현지 사람들에게도 상당한 인정을 받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 것이다. 또 그곳에서 만난 포수 출신의 이치수(李致水)라는 인물은 성실한 생활을 이어갈 뿐만아니라 정식으로 글을 배우고 “백록동서원(白鹿洞書院)의 학규를 익혀 새벽부터 밤까지” 성심으로 학문에 진력하며 상찬을 금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기록했다.⁴⁸⁾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 면모가, 급박하게 전개되는 국내외의 정세와 시대적 대세를 바라보는 그의 근심을 모두 털어내기는 역부족이었다. 유인석의 명에 따라 심양으로 향한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가 어떠한 배경에서 부여되었으며, 또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를 성찰하고 되뇌었다. 이에 그는 “지금 처의(處義)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예의(禮義)의 나라를 다시 일으키는 일일 뿐이다. 그러나 세상의 변화가 너무 심하여 초지를 관철하기가 어려워 어쩔 수 없이 하등의 일들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설령 세상이 변하더라도 그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뜻을 세워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라고 다짐한다.

상술한 그의 다짐의 이면에는 상당한 고뇌와 불안감이 감지된다. 스스로는 확고한 신념을 견지하고 있지만, 예측하기 어려운 세태의 변화 속에서 초지(初志)를 고수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워진 상황으로 변모해 가는 현실 자체를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지 유력 인사와의 접촉 또한 사실상 막혀 있는 상황이었기에, 고립감 역시 지워내기 어려웠다. 그의 마음 심연

46) 그는 고종 대에 수성도찰방(輸城道察訪)을 지냈다.

47) 삼가례는 관례 때 세 번 관을 갈아 씌우는 의식으로 통상 초가(初加)·재가(再加)·삼가(三加)로 나뉜다. 『주자가례』에 따르면 초가에는 치포관(緇布冠), 재가에는 사모(紗帽)를 씌우고, 삼가에는 복두(幘頭)를 씌운다.

48) 위의 책, “11월 27일”, 165쪽.

에 자리한 이러한 불안한 상념은 12월 1일, 귀국 전날 거행된 ‘강행례(講行禮)’에서 특히 도드라졌다.

“저녁때 다시 눈이 오고 바람이 불어 떠나기가 어렵게 되었고, 주인이 간곡히 만류하기도 하여 출발을 멈추고 강행례(講行禮)를 베풀었다. 무릇 1년 만에 갖는 의식이었는데 좌중에 옛부터 있던 사람은 두어 명뿐이었다. 이곳에서 강행례를 연다는 것이 비록 기쁘고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지만, 옛일을 돌이켜보고 지금을 비교해보니 마음의 쓰라림을 금할 수 없었다.”⁴⁹⁾

강행례는 조선 시대 유생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경전을 강독하고, 함께 음악하며 예의(禮儀)를 행하는 공식적인 의례이다. 그는 스승을 배종하여 통화 궤덕천(櫃德川)이란 곳에서 이 의식을 거행했다. 하지만 문인들은 각지로 흩어져 있는 두 세명 남짓 남아있는 상황이었고, 자리에 참석한 인근의 학도는 단 3인에 불과했다. 그의 뇌리에는 1년 전인 1895년 각처에서 온 선비 5~6백명이 봄볕던 제천 장담에서 열린 향음주례가 떠올랐을 것이다.⁵⁰⁾ 대의와 명분을 따라 목숨을 뒤로하고 이역으로 건너왔지만, 그곳에서의 현실은 과거 1년 전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결국, 그는 “의리를 펴고 도리를 지키다가 수많은 동지들이 숨져갔고, 남아있는 동지들도 환란을 겪고 난 뒤 새벽벌처럼 흩어져버린” 현실을 직시한 채로 국내로 돌아와야 했다.⁵¹⁾ 그에게 스승들과 동지들이 희망을 품은 채 머물고 있던 그곳은 분명, ‘나라의 원수를 되갚고 수 백년간 이어진 도학의 맥을 보존하며 중화의 근본을 지켜갈 수 있는 유일무이한 공간’이었다. 하지만 그곳에서 거세게 요동치는 세변(世變)을 막아내고 망명의 대의명분을 지켜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그의 근심은 더욱 크게 확대되고 또 복잡해져 가는 형국이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갈 것을 기약하고 고향에 돌아온 이번 서행은, 그의 마지막 서행이자 최후의 외출이 되었다.⁵²⁾

49) 이조승, 『서행일기』, “12월 1일”, 167쪽.

50) 앞의 책, “12월 1일”, 167쪽.

51) 위의 책, “12월 30일”, 178쪽.

4. 결론

『서행일기』는 1896년 스승이 머물고 있던 통화현으로 건너간 이후 중국 동북부의 요충지인 심양까지를 방문하고 국내로 돌아온 그의 일기이자 체험 기이다. 스승 유인석의 명에 따라 서울에 도착하여 살펴본 정세는 그에게 대단히 큰 실망감을 주었다. 유인석이 올린 상소문은 대신들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아직 고종에게 올라가지 못한 상태였고, 의병을 향한 시선 역시 서둘러 해산을 증용하는 것에 그쳤다. 그는 서울에 있는 작은 아버지를 비롯한 친인척들의 완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서행길에 올랐지만, 관군의 눈을 피해 이동해야 했고 또 자신들을 향한 민중들의 시선 역시 전과는 자못 달라져 있었다. 무엇보다 경제적 궁핍은 체력적인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었다.

일행은 스승을 만나야만 한다는 일념으로 천신만고 끝에 강을 건넜지만, 그들이 머무는 곳에 대한 정보는 전무했다. 그는 우연히 마주한 주변인들의 도움으로 유인석을 만나 그간의 사정을 전하자 스승은 그에게 심양에 가서 동지들을 만난 뒤 산동으로 건너가 중국인 유력자와 접촉해 볼 것을 명한다. 지체없이 다시금 행장을 꾸린 그들 앞에는 혹독한 만주 벌판의 추위가 몰아치고 있었고 끼니조차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빈곤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역 만주에서 그는 시대적 아픔과 풍전등화와 같은 민족의 현실을 통감하는 동시에 빈한(貧寒)한 여객(旅客)의 실정을 절감해야 했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서 지극하고도 절실한 의지로 불철주야 분투 중이던 동지들의 희생과 헌신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평범해보이는 무명 인사들의 따뜻한 온정과 격려를 받으며 좌절에 빠지지 않고 전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지에서의 생활은 그곳에서 만들어 가야 할 '이상'에 대한 적지 않은 우려를 자아내기 충분했다. 동지들은 각지로 흩어져 빈곤과 싸우고 있

52) 유인석은 이조승을 비롯하여 자신을 보좌하다 이내 유명을 달리한 젊은 의병들을 떠올리며 “여러 해 동안 이어진 병란 속에서 분주히 움직이며 지친 상처로 횡사하거나 병들어 죽은 이가 있었으니, 이실곡(李實谷)·유도진(俞桃津)·원서암(元恕庵)·주현구(朱鉉九)·이조승(李肇承)·정용화(鄭華鎔) 이하 몇 사람이 있었다. 내가 패하여 요동으로 들어가고서, 시작부터 끝까지 험난한 풍상에 시달린 고생을 또 어찌 이루 말할 수 있으리오!”라고 기술했다. (『毅菴集』卷32, 「散言」, “(乙未) 因積苦兵間, 奔走勞傷, 橫終病死, 如李實谷·俞桃津·元恕庵·朱鉉九·李肇承·鄭華鎔以下凡幾人矣, 子之敗而入遼東, 始終辛苦風霜, 又何如矣!”)

었고 청나라의 태도 역시 기대와 어긋났으며, 나라의 회복과 중화의 보존을 위한 근거지는 아직 그 진용을 완비할 수 있을지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무엇보다 의병 및 서행 과정에서 수 많은 동료 문인·지사들의 희생이 따르며 부대의 예봉 역시 상당히 무더진 상태였다. 이에 내년을 기약하며 귀국하는 그의 발걸음은 대단히 무거울 수 밖에 없었다.

요컨대 『서행일기』는 23살 청년 유생이자 의병의 현실인식과 당대의 분위기 또 그의 눈에 비친 이역의 실경과 그곳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던 동료 문인의 실상을 오롯이 잘 담고 있다. 즉 기존의 알려진 이른바 한말 ‘의병일기’류에 비해, 요동 현지에 이주한 조선인이 구축했던 삶의 실정과 관계망의 일면까지를 더욱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주목할만한 작품이다. 작품은 개인 이조승의 의병 활동과 함께 그의 내면 세계를 곡진히 담고 있지만, 한 개인을 넘어 당시 이역으로 건너 간 무명의 젊은 의병들의 ‘안과 밖’까지를 상기시키게 만든다. 즉 일군과의 전투에서 커다란 전공이나 명확한 족적을 남기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역사의 사각에서 묵묵히 자신을 희생하며 항일 투쟁에 일조했던 무명 인사들의 숭고했던 삶을 성찰하게 한다.

참고문헌

1. 사료

『의암집(毅菴集)』.

이구영(편역), 『의병운동사적』, 현대실학사, 2002.

구완희·이충구·김규선, 『국역제천의병자료』 2, 세명대 지역문화연구소, 2008.

독립운동사편찬위, 『독립운동사자료집』 권1, 고려서림, 1971.

2. 논저

구완희, 「이주승의 삶과 『취암집』」, 『한말제천의병연구』, 선인, 2005.

_____, 「한말의 의병장 경암 서상렬의 생애」, 『지역문화연구』 12, 세명대학교 지역문화연구소, 2013.

김상기, 「의암 류인석의 사상과 제천의병」, 『의암 류인석의 생애와 대일의병항쟁의 재조명』, 의암학회, 2015.

김 양, 「통화현 오도구 근거지와 팔왕동 근거지」, 『의암학연구』 8, 의암학회, 2011.

김용달, 「한국독립운동에서 무장투쟁의 전개와 의의」, 『한국독립운동사연구』 69,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20.

오일환, 「초과의무로서의 항일의병항쟁의 의의」, 『민족사상』 11(3), 한국민족사상학회, 2017.

이상근, 「유인석 의병진의 복상과 항일투쟁」, 『의암학연구』 5, 의암학회, 2008.

최봉룡, 「의암 류인석의 해외 서간도지역 항일운동근거지 구축」, 『의암 유인석의 생애와 대일 의병항쟁의 재조명』, 의암학회, 2015.

〈Abstract〉

**A Study on the Western Travel Line and Space Awareness
of Lee Jo-seung's, a Anti-Japanese Righteous Army
at the end of the Joseon Dynasty
- Focusing on the 『Seoheng-Ilgi』 -**

Han, Gil-Ro

Lee Jo-seung's 『Seoheng-Ilgi』 is a work that captures the situation at the time of traveling a distance of about 1,964km of land for 175 days from June 1896 to January of the following year. As a Anti-Japanese Righteous Army, he visited Yoo In-seok, a teacher who crossed into the area of Liaodong (Manju) across the Ap-nok River. When he arrived, the place was gripped by a severe cold, and poverty that couldn't even secure proper meals was waiting for him. Although he experienced the hardships of a traveler there, he was able to witness firsthand the sacrifice and devotion of his comrades. In addition, he received the warmth and encouragement of his compatriots, which were not found in Korea, which became the driving force to advance without falling into frustration. More than anything, it was the defacto last stronghold to reclaim the country and uphold his convictions—but the conditions there made it impossible to fulfill the anticipated mission. Against this backdrop, his steps back home hoping for the future were very heavy. In short, this work provides a clear insight into his perception of reality and the spirit of righteous army, while at the same time evoking reflection on the noble lives of young Anti-Japanese Righteous Army who silently sacrificed and contributed to the anti-Japanese struggle in the margins of history.

* Key Words: Lee Jo-seung, 『Seoheng-Ilgi』, Anti-Japanese Righteous Army, Hojwa Righteous Armies, Yoo In-seok

· 논문투고일: 2025년 10월 12일 · 심사완료일: 2025년 11월 24일 · 게재결정일: 2025년 11월 26일

